제 133회 KMA LEADERS FORUM 강연 요약

일시 : 2019년 5월 10일 (금) 06:40~09:00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SPEAKER 박 세 헌 배민푸드테크 경영지원실장

- 현) 배민푸드테크 경영지원실장
- 전) 우아한형제들 인사지원실장
- 전) 게임빌컴투스 그룹 경영지원실장
- 전) 엔씨소프트 HR팀장
- 전) 네이버 인사기획팀, 현대카드 인사지원팀, PWC HR컨설턴트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인사조직 석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배민다운 성과주의, 결국 워라밸을 이끌다!

1. 우아한형제들에게 일이란?

1) 자유와 자율 :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자유와 자율을 구분함. 자율은 자신의 욕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뜻함. 우아한형제들은 자유가 아닌 최소한의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최대한의 철저한 자율 문화를 추구함.

2) 목표가 아닌 목적 : 조직에서는 목적이 목표에 의해 호도되는 경우가 많음. 우아한 형제들의 목적은 고객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때문에 목표가 아닌 목적에 집중하도록 목적과 관계 없는 프로세스를 과감히 생략하고 있음. (예) 보고자료 작성 등.

3) 권위와 권위적을 구분 : 권위적인 분위기 역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기, 연차에 사유 달지 않기 등 권위적인 절차와 문화를 모두 없애나가고 있음.

2. 우아한형제들이 일하는 방법

1) 소통 문화 : 조직과 일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내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믿음이 생길 때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철학 하에 공개 토론 문화를 적극 장려함. 대표부터 사원까지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며, 어떠한 작은 의견이라도 피드백을 제공함.

2) 소통 공간 : 배달의 민족에서 잡담은 소통이며 이는 곧 창의성.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파티션을 없애고 고정 좌석을 최소화 하였음.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은 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장소가 됨. 운동장 스탠드를 닮은, 다락방을 닮은, 다양한 디자인의 공간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함.

3) 복지 : 배달의 민족은 구성원이 행복이 업무 성과라는 목적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믿음. 구성원이 조직 내외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집중 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4) 시도 : 조직문화에 정답이란 없음.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 조직만의 가치관을 같이 고민하고 정의하고 또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함.

제 133회 KMA LEADERS FORUM 현장스케치

일시 : 2019년 5월 10일 (금) 06:40~09:00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